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 번역가

누구 위한 '세금 인하' 인가?

인류 역사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세금과 병역 등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가 완벽하게 공평한 적이 있었을까?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가능한 완벽하게 공평한 조치를 취하려 노력하는 왕과 정부가 있었다면, 그때가 바로 '성군(聖君)' '전륜성왕'이나 '철인(哲人)'이 통치하는 태평성대였을 것이다.

요즈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를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와 여당 안에서도 이것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요점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공평한 과세'라는 것이다.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누군가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얼핏 보면 '좋은 일' 같아 보이는데, 곳곳에서 저항과 반대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써야 할 돈은 정해져 있는데 부자들의 세금을 내려주면, 그 내려준 세금만큼 어딘가에서 보전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 몫은 결국 직접세를 통해서든 간접세를 통해서든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문제 해결이 어려운 곳도 없을 것이다. 역대 정권이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값을 바로잡겠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겠다는 기대 자체를 하지 못하게 바로잡을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고통 받게 하겠다. …" 등 그럴듯한 말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정권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많이 내지 않게 하겠다"고 하니, '땅 부자'들은 신명나게 되었다. 이것이 공평한 정책일까?

미국에 비해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에릭슨이나 노키아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회장 등이 과속이나 주차 위반으로 걸릴 경우, 그에게 부과되는 교통벌칙금은 일반 서민의 수십 배에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수상이나 장관 등 고위직 인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벌과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에서처럼 교통벌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공평한 것일까? 아니면 수천 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중고차 한 대 어렵게 장만해서 과일 장사를 하는 행상이나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액수'의 벌칙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가 공평한 것일까?

내가 느끼기에 진실로 공평한 것은, 북유럽의 경우처럼 심지어 범칙금까지도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가진 것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누리는 비결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사회 변혁이 일어나 위와 아래가 뒤집히는 일들은 세금과 병역 부과가 공평하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저항하고 궐기했을 때에 일어났었다. 북유럽 국가의 '가진 사람들'이 얼핏 보면 차등 대우 같이 보이는 세금과 벌과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현명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종부세 인하를 강력하게 바라는 분들이여, 오래도록 그 재산을 곱게 유지하고 자손만대로 부를 누리고 싶다면 종부세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주장하라. "우리에게는 벌칙금과 과태료를 서민보다 더 부과하라. 그것이 공평하다"고 요구하라. 그러면 온 국민이 여러분들을 '현명한 부자'로 인정하고 존경할 것이다.

정부 여당의 정책 입안자들이여, 권력을 오래도록 누리고 싶다면 극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일을 '경제 살리기'라고 호도하지 말라. MB 정권을 출범시켜준 유권자들의 표가 여러분을 겨누는 날카로운 창이 될지, 계속해서 정권을 지지하고 후원하게 될지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화목한 가정 비결은 '인격존중'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㊽ 아빠는 나의 영원한 멘토

신세대 자녀들과 관계가 힘들어 애를 태우는 부모님들이 많다. 가치관과 세대 차이도 크고 자녀들이 자라는 환경도 예전과 달라 더욱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씨에게도 딸을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불법에 대한 굳은 신심으로 키워냈다. 세상에서 흔히 바라는 가치보다 인간답게 자유롭게 사는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딸을 소중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대화하며 강요하지 않으려 했다. 얼마 전 이제는 대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받고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용~!!

막상 생일이라고 하니 막 보고 싶네요. 친한 애들 생일일 때는 그냥 멀리서 축하한다고 말 한마디만 하고 별 느낌이 없었는데 아빠 생신이라고 하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이게 가족이어서 그런가봐요. 다 내가 지금처럼 가족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빠 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가족의 소중함이란 것을 나한테 깨닫게 해줬잖아요. 주변 애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애들도 무척 많거든요.

모두 다 감사해요. 물론 아빠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내색 한 번 안하고 뒷받침 해줬고 지금도 해주고 있는 건 물론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준 것들. 그런 건 아빠가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잖아요. 진지하게 따로 시간을 내고 막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툭툭 던지며 하는 아빠의 말들. 말 속에 뼈가 있다고나 할까.

그런 아빠 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법은 아직 아빠의 반도 쫓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고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랑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참 감사해요. 원래는 내 목표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올라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동시에 남들이 존경할만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정확히 언제까지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아빠의 영향 아래) 명예를 얻기 보다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내 전공과 직업을 빨리 찾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 아빠라면 단호하게 우선 직장만 찾기보다도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라고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지요.

아빠가 중·고등학교 때 내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용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엄마랑 아빠가 나에게 무용 중간에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고 했다면 나는 그동안 내가 했던 만큼 열심히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조언은 대학 와서부터 제대로 시작이었지요.

남들은 대학 와서 많이 놀러 다니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야단한데요. '등록금 아깝게 뭐 하는거냐' '졸업해서 뭐할거냐' '학점관리 해라' 이런 말들 많이 듣는다던데 나는 아빠가 이런 말 안하고 정말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는 법, 즐길 수 있는 법을 깨닫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아무리 놀러 다니고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그래도 나쁜 시선으로 안 봐서 고맙고. 어떤 행동을 하던지 나를 믿고 잔소리하지 않은 것도 고맙고. 또 다른 부모님들과는 다르게 대학 생활 유용하게 보내는 법도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줬고요. 아무튼 고마운 것 투성이에요.

아빠는 어떻게 지내요? 그냥 잘 지낸다 이러지 말고, 제발 고기 안 먹는다 하지 말고 고기 좀 많이 드세요! 배 안고프더라도 세 끼 꼬박꼬박 챙겨먹고! 혈압 생각해서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운동 많이 하고요. 무리는 하지 말고. 엄마가 그랬는데 난 성격은 아빠를 닮은 것 같다네요. 내 생각에도 그래요.

글이 완전 길어졌네요. 그만큼 아빠를 사랑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나의 영원하고 진정한 멘토가 되어줬고 되어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우리아빠~ 많이많이 사랑하고요.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요. 생일 축하해요!! 안뇨옹♥!!

이씨가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딸이 자신을 '영원하고 진정한 멘토(스승)'라고 불러 준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존중해 주었는데 오히려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해주었고, 아빠의 진심을 알아 준 것이 어떤 값진 생일 선물보다 소중하다고 한다. 신세대라 해도 결국 진심은 통한다는 희망을 일깨워주는 흐뭇한 소식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처용이 무당이라고?

울산기독교계의 주장에 담긴 '상징'들

울산 지역의 기독교관련 단체와 문화단체가 손을 잡고 울산시에 처용문화제 지원을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그들은 "울산시가 처용문화제에 세금을 지원함으로써 무당인 처용을 믿고 따르는 특정종교를 지원하고 있다"며 고발운운까지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상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기독교계가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각도다. 우리민족의 역사, 언필칭 5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차지하는 시간은 극미하다. 이제 100년을 넘긴 역사일 뿐인 기독교의 역사인식은 유일신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동양의 종교가 순환구조를 지향하는데 반해 서양의 개신교는 직선적 구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역사인식에 있어서도 명백한 차이가 난다.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종교는 역사를 포괄적인 측면에서 본다. 원융과 조화라는 의지 속에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는 유일신 사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의 가치들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역사의 눈을 뜨고 있다. 과거에 대한 부정, 전통 가치에 대한 부정은 한국 땅에 도착한 기독교를 매우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게 길들여왔다. 한국 개신교의 선교에 대한 집착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처용을 무당으로 보는 시각은 개신교의 입장에서 타당성을 확보할지 몰라도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란 측면에서는 강아지도 웃을 일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처용의 이야기를 굳이 인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처용의 문화적 가치를 종교적 소신 때문에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조선말기 개신교가 유입된 시기부터 쓰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이 사건에 걸려 있는 중요한 상징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의 항의에 못 이겨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종교편향과 관련한 공무원의 언동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도 발의 되어 있는 상태다. 어찌됐건 대통령의 주문에 의해 개정된 규정을 기독교계가 먼저 활용(?)했다. 전통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을 특정종교에 대한 지원으로 몰아가면서 종교편향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울산 기독교계의 주장이 먹히는 정도라면 곤란하고 난처하지 않을 수 없다. 가치에 대한 해석의 차이, 그 모호성을 빌미로 전국에서 종교가 대립하는 국지전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종교편향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울산에서 올라온 교훈일 것이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나 직위를 이용한 직접 선교행위 등을 준엄한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 불교계는 종교편향이라는 화두를 안고 있다. 그 속에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의 몇몇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를 잘 들어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신적 모순과 한국 종교계의 엇박자가 또렷하게 보인다. 거기서 원융과 조화의 길을 찾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뻣뻣,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투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POLA 팔찌

△POLA 반지

콜레스테롤함량,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조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18년간 1만명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KBS일요스페셜(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06,11,22)방영
연합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내일신문,조선닷컴,동아닷컴보도

전화주시면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둣가게건물 205호
◇자매품 : 파워봉, 골반사랑101, 척추사랑(신선대)